나주, 치매안심돌봄학교 명랑운동회 성료

국립나주숲체원·동신대·복지기관, 통합돌봄 협력

2026년 숲속치매안심돌봄학교 명랑 운동회 단체 사진 /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가 치매 어르신과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리는 숲속 화합 한마당을 마련하며 치매 친화형 통합돌봄 공동체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국립나주숲체원 대강당에서 '2026년 숲속치매안심돌봄학교 제2회 명랑운동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치매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신체적·정서적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숲속치매안심돌봄학교 참여 어르신과 가족, 협업 기관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해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함께했다. 특히 나주시는 국립나주숲체원, 동신대학교, 나주시노인복지관, 지역 복지기관 등과 협력해 치매 친화 공동체 조성과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 연계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행사는 식전 공연과 축하공연으로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한 가운데 고리 던지기, 신발 양궁, 신문지 달리기 게임 등 어르신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또한 동신대학교 뷰티미용학과와 연계한 페이스·바디페인팅 체험 부스 운영으로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으며 행사장 곳곳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안전 지원과 정서 돌봄 활동도 함께 이뤄져 큰 호응을 얻었다. /서성택 기자

담양군, 2027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6월 조기 신청

담양군이 토양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추진하는 '2027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오는 6월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와 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혼합유박)과 ▲부숙 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으로,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정된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신청 시기를 포함한 전체적인 사업 추진 일정이 대폭 조정됐다. /강종연 기자

화순군,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1일 벼 일반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초기 병해충 방제를 위해 모내기 직전 또는 당일 모판에 처리하는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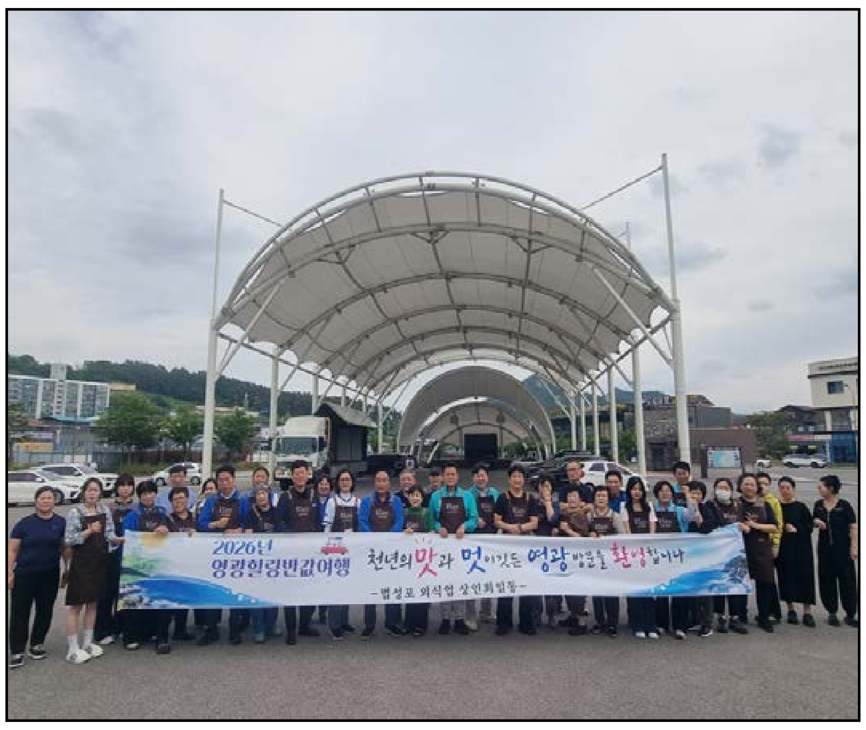
올해 화순군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벼 일반재배 면적 약 3,400ha에 대해 지원 금액(100㎡당 1,000원)이 명시된 약제 교환권을 발행 완료했다.

해당 농가는 자율적으로 관내 지정업체에서 오는 6월 12일까지 교환하여 사용하면 된다.

약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약제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적기, 적량 사용해야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남호경 기자

영광 법성포 굴비음식거리, 위생·친절 서비스 향상 나서

영업주 대상 위생·친절교육 및 불친절 근절 자정결의 대회 실시



영업주들이 친절 실천 구호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영광군청 제공

영광군은 '영광 쉼표여행(반값여행)' 사업으로 관광객 방문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법성포 뉴타운 광장에서 법성포 굴비음식거리 영업주를 대상으로 위생·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식중독 예방 및 개인위생 관리 ▲안전한 음식 제공을 위한 위생수칙 ▲관광객 응대 서비스 향상 ▲친절한 말하기와 응대 요령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교육 후 영업주들은 자발적으로 앞장서 "다시 찾고 싶은 법성포 굴비거리 만들기"를 위한 불친절 근절 결의를 다지며 "고객이 먼저, 친절은 기본!"이라는 구호를 함께 외치는 등 친절 서비스 실천 의지를 보였다. 군 관계자는 "법성포 굴비음식거리는 영광을 대표하는 관광·외식 명소인 만큼 위생과 친절은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영업주 자정활동을 통해 관광객들이 만족하고 다시 찾고 싶은 음식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영광 쉼표여행' 사업으로 늘어난 관광객을 맞아 법성포 굴비음식거리 영업주를 대상으로 위생·친절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식중독 예방, 개인위생 관리, 안전한 음식 제공과 관광객 응대 서비스 향상 등에 중점을 뒀다. 영업주들은 교육 후 자발적으로 친절 실천과 불친절 근절을 다짐하며 서비스 의지를 강화했다. "고객이 먼저, 친절은 기본"이라는 구호를 함께 외치며 음식거리 품질 향상 의지를 표명했다. /김진 기자

장성군, 황룡강 음악힐링축제 23일 개막

23~25일 황룡강서 봄꽃과 음악 어우러진 축제, 홍진영·로이킴 공연

매년 봄, 화려한 봄꽃으로 전국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던 장성군 황룡강이 올해는 아름다운 음악과 다채로운 즐길거리로 또 한 번 변신한다.

장성군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황룡정원 주무대를 비롯한 황룡강 일원에서 '장성 황룡강 음악힐링축제'를 연다. 화려한 봄꽃에 낭만적인 음악 선율을 더해, 바쁜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선사한다.

축제의 포문을 여는 23일 개막공연에는 '트로트 퀸' 홍진영을 비롯해 박성온, 지창민 등이 출연해 축제 분위기를 돋운다. 축하공연 뒤에는 밤하늘을 수놓을 화려한 불꽃놀이도 펼쳐진다.

둘째 날인 24일 저녁 6시에 진행되는 '장성 뮤직 페스티벌'에선 감성적인 목소리의 '싱어송라이터' 로이킴을 비롯해 이예준, 공원, 캔트비블루, 언오피셜 등이 무대에 오른다. 봄꽃으로 물든 황룡강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특별한 추억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2026장성 황룡강 음악힐링축제 포스터 /장성군 제공

장성 최초로 열리는 '장성 버스킹 전국대회'도 관심을 모은다. 전국의 실력 있는 음악인들이 24일 서삼교, 그라운드골프장 소무대, 청백리정원에서 본선 경합을 벌인 뒤 25일 오후 5시 황룡정원 주무대에서 최종 결선을 치른다.

인디밴드, 퓨전음악 등 장르를 불문한 거리 예술가들의 독창적인 무대가 황룡강을 열정과 젊음의 열기로 가득 채울 예정이다. 방문객들의 오감을 만족시켜 줄 참여형 행사도 꼼꼼하게 준비됐다. 먼저, 3시간 이상 축제를 여유롭게 둘러보고 인증하면 '성장이 장성이 키링'을 받을 수 있는 '3시간 머물장'이 운영된다. /김재섭 기자